

Japan Weekly Digest

2012. 2. 18. ~ 2012. 2. 24

☐ 금주의 이슈

- 엔화, 80엔대로 약화
- 일본의 무역적자는 일시적리라고 분석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의 지방중소기업들, 농업 참여
- 미쓰이물산 브라질에서 자동차부품 물류사업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주요 정책과제
- 산업정책 「중간보고」 발표

☐ 보고서 리뷰

- 『산업집적의 현황과 과제』 재단법인 상공종합연구소,
2월21일



대한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엔화, 80엔대로 약화

- 엔화가 지난 22일, 7개월만에 달러당 80엔 38전을 기록. 엔화가 80엔대로 약화된 것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엔 매도에 나선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며 작년 10월 최고치 75엔 32전에 비하면 5엔 정도 절하됨
- 미국경제의 호조, 미국·일본·유럽의 금융완화로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행동이 주된 배경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자금이 몰려 엔고가 진행되어 왔던 상황도 점차 역전되고 있음
 - 유럽재정위기로 미국·일본·유럽의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대량의 자금을 공급한 것 외에, 국채매입 등 추가완화를 결정함에 따라, 여유자금이 국제상품이나 고금리통화에 투자여과로 그동안 일본의 단기국채에 투자한 자금도 해외로 빠져 나감
- 일본의 무역적자를 의식한 한 엔 매도 움직임으로, 작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엔 매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들이 엔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원인임

□ 2011년 일본의 무역적자는 일시적

- 내각부가 2011년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한 리포트에서 원전 정지에 따른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증가, 부품조달망 단절로 인한 자동차수출 감소 등 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무역적자 고착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
- 작년 2.4조엔의 무역적자요인은 수입가격 상승요인 50%, 국내 제조설비 손괴로 인한 플라스틱의 대체 수입 증가 등 수입수량의 증가요인 25%, 나머지 25%는 수출수량 감소로 분석
 - 금년 1월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, 대아시아 수출이 대폭 감소(마이너스 13.7%)한데 기인. 여기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아시아국가들의 경기악화가 수입둔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
 - 따라서 향후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일본의 흑자전환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의 지방중소기업들, 농업 참여

- 일본의 지방중소기업들이 속속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. 오오이타현에서는 수지부품메이커가 만능파(잘게 썬 실파)를, 사이타마현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작기업이 브로콜리나 래디쉬를 생산
- 본업의 노하우나 잉여자원을 농업에 활용,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 TP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효율화가 급선무인 바, 각사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
- 대표적인 예로 온실에서 파를 생산하고 있는 「코우요우그린푸드」. 캐논과 닛산자동차 등에 수지부품을 공급하는 호요정공이 작년 4월 수경재배로 파를 생산하는 코우요우그린푸드 설립을 주도

□ 미쯔이물산 브라질에서 자동차부품 물류사업

- 미쯔이물산이 브라질 부품물류회사를 매수, 미국 GM 등 미국·유럽 및 일본계 자동차메이커에 판매. 미쯔이물산은 미국·유럽과 아시아에서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한 부품 물류사업을 전개할 예정
- 미쯔이물산이 매수한 트라크는 브라질 대기업으로 베로세로지스티카의 주식 모두를 인수. 베로세는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GM 등의 공장을 상대로 부품의 수송 관리나 물류거점을 운영, 배송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
- 미쯔이물산은 GM이나 도요타 외에도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메이커와 프랑스의 르노, 독일의 포크스바겐 등을 유럽자동차를 상대로 거래를 확대할 계획
-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은 도요타가 브라질에 제2공장을 금년 가동 예정이며, 닛산자동차도 2014년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계획. 미쯔이물산은 성장시장에서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, 브라질에서 연간 15%씩 매출을 늘려 나간다는 구상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주요 정책과제

- 16일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에서 통상정책과 신흥국 시장변화와 관련된 경제산업성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제시
- 통상정책 주요과제
 - 경제적 연대는 일본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,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적극적인 FTA정책 전개
 - 서플라이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다국간 무역자유화, 지역경제통합이 중요
 -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확대가 효과적, 정보기술협정(ITA)은 기술진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, 조기에 대상품목의 확대 필요
 - 미얀마에 대한 대응과 관련, 채무문제 해결과 현지 인재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
- 신흥국시장의 변화와 과제
 - 일본의 경우 개도국과 신흥국 등 2가지 개념이 혼재, 일본의 경제협력확대 대상국은 어디까지나 신흥국임.
 - 스마트시티 등에 관한 표준 확보, 지역적인 상호인정 등은 중요한 과제
 - 신흥국의 인력활용과 인력육성을 위해 유학생 및 연구생에게 인턴쉽 제공
 - 엔고 등의 요인 때문에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사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 동시에 산업공동화 대책, 고용 대책이 중요한 과제

□ 산업정책「중간보고」발표

-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구조부회는 작년 12월 발표한 산업정책「중간정리」관련 시책을 확정 발표
- 잠재된 내수 개발 : ▷신산업창출, ▷규제·제도개혁, ▷여성 활용 추진
- 글로벌 수요 확보 : ▷엔고·공동화대책, ▷경제적 연대(EPA/FTA) 추진, ▷의료의 국제화, ▷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해외전개, ▷중소기업의 해외 전개

◆ 보고서 리뷰

『산업집적의 현황과 과제』

재단법인 상공종합연구소, 2월21일

□ 산업집적에 관한 최근 연구와 논의

- 인력과 자금에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근접지역내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집적이 중요한 존립기반의 하나임.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들의 대두로 경합제품의 수입증가로 산지의 침체, 기계공업의 해외생산이전 등 일본내 각 산업집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산업집적은 생산 집중 요인과 메커니즘 등에서 집적의 형성과 분산·이동에 관한 이론, 집적내외 거래관계, 기술관련 등에 기초하여 각 집적이 갖는 기능의 지리적 확산에 주목하는 이론이 있음.
 - 규모의 경제성의 크기와 수송비용의 수준 변화에 의해 집적의 형성과 기존 집적의 분산·이동 현상과 집적의 광역화와 기능의 지리적 다층화 진전 현상을 각각 규명
- 지식, 이노베이션 창출과 지역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연구도 활발. 이들 연구에서는 지식창조에서 암묵지의 중요성, 기술발전이나 이노베이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기능, 지식창조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.
 - 특히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서플라이체인 등 거래에 기초한 네트워크외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형성, 인재육성, 물적·통신인프라, 공적기관의 지원 등이 중시되고 있음.

□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집적의 변혁과 네트워킹

- 산업집적에는 산업특성이나 수요의 내용에 따라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설비, 기술, 인재 등이 축적되어 왔으나 축소·쇠퇴기에는 역으로 이들 자원이 개별 기업이나 집적 전체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부의 고착화 (lock-in) 현상이 발생.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인재의 확보·육성, 의사결정 및 행동패턴의 개혁, 지역내 기업간 관계나 분업관계의 변혁 등 경로파괴 (path breaking)가 필요

- 발주지역의 광역화 등과 같은 변화는 개별기업의 전략이나 산업집적내 기업 간 거래, 산업집적간 거래관계 변화, 분업체계 변경 등을 수반, 이것들은 집적의 경로의존성의 파괴·창조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
- 이에 기업데이터베이스의 내실화와 집적지간 공유, 교류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네트워크는 이들 기반을 만드는데 효과적

*출처: <http://www.shokosoken.or.jp/chousa/youshi/23nen/you201104.htm>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사회보장·조세 일체개혁 요강』 수상관저, 2월18일

*출처 : <http://www.kantei.go.jp/jp/kakugikettei/2012/240217kettei.pdf>

- (2) 『산업집적의 현상과 과제』 재단법인상공중합연구소, 2월21일

*출처: <http://www.shokosoken.or.jp/chousa/youshi/23nen/you201104.htm>

- (3) 『재정위기의 최악 시나리오 대비의 필요성』 노무라중합연구소, 2월21일

*출처: 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region/2012/pdf/ck20120202.pdf>

- (4) 『미국이 두려워 하는 일본의 통상교섭력』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2월21일

*출처: http://www.canon-igs.org/column/macroeconomics/20120220_1259.html

- (5) 『동일본대지진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기반 재구축과 정책대응』 경제산업연구소, 2월24일

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11111501/summary.html>

- (6) 『TPP와 ISDS조항』,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2월24일

*출처: http://www.canon-igs.org/column/macroeconomics/20120223_1272.html